

# <병자삼인>에 나타난 ‘우승열패’의 의미

이승민\*

## 〈차례〉

1. 서론
2. <병자삼인>의 희극적 구성과 기법
3. ‘우승열패’에 대한 의미 분석
  - 1) 희극적 웃음을 통한 ‘우승열패’의 의미와 한계
  - 2) 근대적 제도를 통해서 본 ‘우승열패’의 재해석과 의미
4. 결론

## 1. 서론

<병자삼인>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다른 희곡작품에 비해 비교적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sup>1)</sup> <병자삼인>에 대한 연구는 권오만<sup>2)</sup>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었다. 그 간의 논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병자삼인>의 극형식

\* 경북대 박사과정

- 1) <병자삼인>만을 다룬 연구는 소논문만 13편에 달한다. 이에 비해 동시대 다른 작품들, 예를 들어, 이광수의 <규환>의 경우는 3편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타 다른 작품 역시 <규환>의 연구 성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 2) 권오만, 「<병자삼인>攷」, 『국어교육』 1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1.

에 관한 연구, 주제에 관한 연구, 희곡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sup>3)</sup> 먼저 <병자삼인>의 극형식에 관한 연구는 <병자삼인>을 소극으로 규정한 후 내린 부정적인 평가<sup>4)</sup>와 희극으로 규정한 후 내린 긍정적인 평가<sup>5)</sup>로 나눌 수 있다. <병자삼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극형식 논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일신보』에 연재할 당시 이 작품의 제목이 ‘喜劇<病者三人>’이었다는 점과 1912년 11월 16일자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에서 ‘활희(滑稽), 포복절도’ 등의 술어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조일재가 <병자삼인>을 ‘희극’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작품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고,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희극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그리고 <병자삼인>이 소극일 경우는 부정적으로, 희극일 경우는 긍정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런데 희곡작품을 비극·희극·소극·희비극 등의 극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극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sup>6)</sup> 관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작품의 가치를 규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즉 극형식에 따라 작품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병자삼인>이 희극일 경우 그 의미가 평가절상되고, 소극일 경우 그 의미가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병자삼인>이 희

3) <병자삼인>의 희곡사적 위치에 관한 연구는 크게 <병자삼인>을 신파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전통극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근대극과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병자삼인>의 희곡사적 위치에 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논의방향과 그다지 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병자삼인>의 번안 혐의에 대한 논의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세한 검토를 생략하기로 한다.

4) 조창환, 「조일재 작 <병자삼인>의 극문학적 성격」, 『국어문학』 22집,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

이광국, 「<병자삼인> 연구」, 『배달말』 7호, 배달말학회, 1982.

5) 양승국, 「<병자삼인> 재론」, 『한국극예술연구』 10집, 한국극예술학회, 1999.

구명옥, 「희극 <병자삼인> 연구」, 『한국극문학』 1집, 한국극문학회, 1999.

6) J. L. Stryan, 장혜전 옮김, 『연극의 경험』, 소명출판, 2002, 125~128면.

극이나 아니면 소극이나를 두고 벌이는 논란은 결국 소모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 작품 연구에 있어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둘째, <병자삼인>의 주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역시 <병자삼인>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왜냐하면 <병자삼인>의 주제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극형식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극=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웃음을 불러일으키면서 단순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극, 희극=당대 사회의 풍속을 풍자·비판하면서도 웃음을 통해서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고 화해의 결말을 보여주는 극'이란 극형식 정의에 따른 <병자삼인>의 주제에 관한 논의는 소극으로 봤을 때 '여권신장에 대한 비판·경계와 전근대적인 유교 질서의 강조'라는 부정적인 입장<sup>7)</sup>과 희극으로 봤을 때 '남-여의 평등적 세계 구현을 통하여 우승열패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평화공존, 상호 부조의 세계관을 주장'한다는 평가<sup>8)</sup>로 역시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해 봤을 때, <병자삼인>에 대한 대다수의 논의는 극형식 분석을 통한 주제의식 고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희극작품의 분석에 있어서 극형식에 대한 규정과 그를 통한 의미분석은 충분히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방식은 극형식이 가지는 일정한 분석틀을 통해서 의미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자삼인>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하다 하겠다.<sup>9)</sup>

7) 조창환, 앞의 논문.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새미, 1997.

8) 구명옥, 앞의 논문; 양승국, 앞의 논문.

9) 최근 들어 극형식을 통한 주제의 이분법적인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 <병자삼인>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병자삼인>이라는 텍스트 자체에 내재해 있는 의미의 층위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여 <병자삼인>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과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 우수진의 논문 (『<병자삼인>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5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과 <병자삼인>의 미적 특성, 구성 원리, 주제와 메시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텍스트 분석보

이 논문은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에서 강조한 우승열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병자삼인>에 나타난 우승열패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다시 우승열패의 의미에 주목하는 이유는 ‘희극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에 나타난 논리의 특이함 때문이다.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sup>10)</sup> <병자삼인>이 ‘포복절도할’만한 내용이라는 것과 ‘이십세기에서 싱할하는 사람으로 우승열패함은 정훈 리치’라는 사실, 그리고 ‘각본을 연극으로 할 날이 잇슬’것이니 연재되는 동안 이 작품을 잘 읽어두라는 당부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희극적인 웃음과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우승열패의 논리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웃음의 교정기능을 통해서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희극의 논리<sup>11)</sup>와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우승열패의 이치<sup>12)</sup>가 양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다는 <병자삼인>이라는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1910년대의 각종 시각적 공간과 시각 체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쇄매체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박명진의 논문(『근대 초기 시각 체제와 희극』, 『한국극예술연구』 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이 있다.

- 10) 1912년 11월 16일자 ‘희극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금번에 본사에서 가장 참신히 연극 직료로 취미진진하고 포복절도할 각본(脚本)을 창작하여 명일부터 본지에 기지해갓스오니 보시오 제군이여 데일적으로 희극 병자삼인(病者三人)이라 하는 것이 출싱할 터이오며 그 너용에 활희(滑稽)한 스킨은 독자로 하여곰 빅을 쥐이고 허리를 분지를지라 이 오늘날 이십세기에서 싱할하는 스팀으로 우승열패함은 정훈 리치라 제군도 명일부터 그 너용을 보시면 아시려니와, 겸하여 이 각본을 연극으로 할 날이 잇슬 터이오니, 하나도 루락업시 잘 보아 두시면 일후 연극할 쎄에는 실디로 그 광경을 보시고 다대흥 흥미를 도울 줄 밋스오니 더욱 이독하시오”

11) Henri Bergson, 김진성 옮김, 『웃음-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1983, 120면.

12) 사회진화론은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었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뒤 영국의 스펜서, 헉슬리 등이 인간사회 속에 적용시킨 정치사상이었다. 동식물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거나 진화 또는 도태했듯

그런데 <병자삼인>에서는 이러한 상반되는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작가 조일재가 희극적인 형식으로 포장된 <병자삼인>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우승열패의 논리가 분명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병자삼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우승열패의 논리는 단순히 희극의 원리만으로 해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논문은 희극의 원리, 특히 희극적 웃음으로 해석된 우승열패의 의미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텍스트에 나타난 근대적 제도를 통해서 우승열패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다음 장에서는 <병자삼인>이 보여주는 희극적 구성과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병자삼인>의 희극적 구성과 기법

전 4장으로 구성된 <병자삼인>은 남성의 능력보다 여성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전도된 남녀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세 쌍의 부부—정필수·이옥자 부부, 하계순·공소사 부부, 박원청·김원경 부부—들 사이에서 하루 동안 정확히 말하자면 만나질 정도)에 일어난 '요절복통할 병자 소동'을 그리고 있다. 1장에서는 정필수·이옥자 부부, 2장에서는 하계순·공소사 부부, 3장에서는 박원청·김원경 부부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남편들의 병자 소동을 그리고 있으며,

---

이, 서구사회가 산업혁명을 겪고 난 뒤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계급갈등이 첨예화되자 이를 무마하거나 계급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설득하기 위한 부르주아적 계급의 옹호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시 제국주의의 침략을 호도하는 이론으로까지 활용되었다.(임종찬, 「육당의 문학에 미친 일본의 문예사조」, 『한국문학논총』 22집, 한국문학회, 1998, 193~194면; 박성진, 「사회진화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20C 초반 한국 지식인들의 논의와 그 성격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96, 181~208면)

4장은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병자삼인>의 극구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인색하였다. <병자삼인>이 ‘어떤 계획아래 정리된 것이 아니며, 원인과 결과로 짜여져 상승과 하락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sup>13)</sup> ‘발달-전개-위기-전환-결말과 같은 희곡구성의 기본형식에 어긋나 있고, 단순한 에피소딕 플롯(episodic plot)의 형식이어서, 단편적인 사건의 나열·반복에 불과하다’<sup>14)</sup>는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병자삼인>의 구성을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희곡구성의 기본형식에 어긋나 있으며, 작품 전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사건의 반복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sup>15)</sup> 비록 ‘발달-전개-위기-절정-결말’의 5단 구성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도입-사건의 얽힘-해결’의 3단 구성<sup>16)</sup>은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장은 이옥자의 집을 배경으로 한다. 학교하인인 정필수는 학교 선생인 부인 이옥자의 구박에 못 이겨 귀머거리 흉내를 낸다. 그리고 이때 이옥자의 집에 들른 학교 의사 하계순이 정필수의 편을 들어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짓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러한 정필수와 하계순의 속임수

13) 이광국, 앞의 논문, 8면.

14) 조창환, 앞의 논문, 170면.

15) <병자삼인>의 극적 구조를 이전과는 달리 ‘각장이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연결을 이루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상호 유기적인 연결로 인해 매우 잘 짜여진 구조’로 이해한 논의로 양승국, 구명옥, 우수진의 논문이 있다.

16) G. B. Tennyson, 김종선 역편, 『희곡입문』,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1985], 59면. 고대 희랍 이후에 극을 4단계로 분석하는 방법은 도입(protasis), 전개(epitasis), 위기(catastasis), 파국(catastrophe)이다.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분석은 현재 사용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널리 통용되는 단어인 ‘도입-사건의 얽힘-해결’의 3단 구성을 사용하기로 한다. 3단 구성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Bernhard Asmuth, 송전 역, 『드라마 분석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6, 192~193면 참조.

는 역시 이옥자의 집에 들른 하계순의 부인이자 학교 의사인 공소사를 통해서 거짓이었음이 밝혀진다. 공소사와 이옥자는 정필수를 혼내줄 계획을 모의하고, 하계순의 행동을 꾀씸하게 여긴 공소사는 하계순을 질책할 것을 다짐한다. 2장은 공소사의 집을 배경으로 정필수에게 거짓진단을 내려 이옥자를 속인 하계순에 대한 공소사의 질책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하계순이 병어리 흥내를 내게 된다. 그 결과 하계순은 공소사로부터 의사직을 박탈당하고, '문간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 정필수가 등장하여 거짓 진단이 들통났다는 것을 하계순에게 알리고, 하계순은 공소사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 3장은 김원경의 학교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학교 회계이자 김원경의 남편인 박원청은 노름채를 갚기 위해 공금횡령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장 김원경으로부터 문책을 당하자 장님 흥내를 낸다. 그 결과 박원청은 회계직을 박탈당하고 김원경의 시중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공소사가 등장하여 김원경에게 자신과 이옥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김원경과 공소사는 병자 흥내를 내는 비겁한 남편들을 징치하기로 결심한다. 남편 혼내주기의 시작으로 김원경은 자신의 남편인 박원청을 혼내기로 한다. 김원경의 부탁을 받은 공소사는 장님을 치료할 의술이라며 박원청의 눈을 빼려 하고, 공소사의 행동에 박원청은 놀라서 도망친다. 마지막 4장은 학교교문을 배경으로 도망치던 박원청이 정필수와 하계순을 만나 각자에게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한 후, 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격분하고, 또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부인들과의 정면 대결을 결심한다. 감정이 격해진 부인들과 남편들이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는 가운데 헌병이 나타나면서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해결되고 화해의 결말을 맺는다.

이상의 내용에서 중요한 사건을 추출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1장(이옥자의 집-도입): 정필수의 귀머거리 흉내-하계순의 거짓 진단-공소사에 의해 밝혀진 거짓 진단-이옥자와 공소사의 계약 공모
- 2장(공소사의 집-연합): 공소사의 추궁-하계순의 병어리 흉내-하계순의 의사직 박탈. 문간 심부름꾼으로 전략-정필수의 등장-정필수·하계순의 해결책 모색
- 3장(김원경의 학교-연합): 박원청의 공금 횡령-김원경의 추궁-박원청의 장님 흉내-공소사의 등장-남편들의 병자 흉내를 징치하기 위해 김원경과 공모-치료를 빌미로 박원청의 눈을 도려내려 함-박원청의 도망
- 4장(학교교문-해결): 박원청·정필수·하계순의 만남-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부인들과의 정면 대결을 결심-세 명의 부인과 세 명의 남편의 정면 대결-헌병 보조원의 등장-남편들을 압송하려는 헌병 보조원-부인들의 사과와 남편들의 용서-화해

위 도식에서 강조해 놓은 부분은 <병자삼인>의 전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다. 1장에서 정필수의 귀머거리 흉내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건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정필수의 귀머거리 흉내로 인해 하계순이 병어리 흉내를 내게 되고, 이 두 사람의 거짓 병자 흉내를 알게된 공소사가 김원경에게 이를 알리면서, 김원경이 그간의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남편인 박원청의 장님 흉내를 징치하고자 치료를 빌미로 눈을 뽑으려 하며, 이로 인해 도망간 박원청이 정필수·하계순과 만나게 되는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해결책으로 부인들과 정면 대결을 하면서 결국 모든 사건은 화해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필수의 귀머거리 흉내를 통해서 이후 모든 상황의 얽힘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이렇게 봤을 때, 정필수의 귀머거리 흉내에서 시작된 <병자삼인>의 사건들은 ‘중속적

17) <병자삼인>에서 박원청의 장님 흉내(3장)가 정필수의 귀머거리 흉내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3장에서 공소사의 등장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박원청의 장님 흉내 역시 1장에서 이루어진 정필수의 귀머거리 흉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으로 접속하고 있는 유기적인 성격<sup>18)</sup>을 보인다.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삽화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앞의 사건과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맞물리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상호 연결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자삼인>의 사건들을 단순한 반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각 장에서 ‘병자 흉내’ 모티프는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 부부의 돌림 노래처럼 1·2·3장에서 똑같이 이어져 반복의 원리에 의한 동일한 사건의 변주<sup>19)</sup>’가 아니라 동일한 모티프를 통해서 사건이 점점 더 확대·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병자삼인>에서 각 장들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품 속 사건 역시 이러한 각 장의 관계를 통해 점점 확대되어 전개되는 것이다. 이는 <병자삼인>의 장면 전환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자삼인>은 ‘앞 장면에서의 등장인물이 그 뒤의 장면에 자연스럽게 개입<sup>20)</sup>’되면서 각 장면을 연결시킨다. 따라서 <병자삼인>은 하나의 결말을 위해서 종속·접속하는 사건의 조합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물들의 개입을 통해서 유기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잘 짜여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희극적인 기법-<병자삼인>의 예를 들자면 동일한 모티프의 반복, 간계-뿐만 아니라 희극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구조의 통일성과 그 연결과 순서에 있어 필연성과 개연성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sup>21)</sup> 이러한 기법적인 면과 극구성방식을 생각했을 때, 통일성과 개연

18) 구명옥, 앞의 논문, 11면.

19) 구명옥, 앞의 논문, 13면.

20) 양승국, 앞의 논문, 31면.

21) 손효주, 「희극론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4, 78~81면. 물론 이러한 조건은 모든 극형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웃음과 그를 통한 교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희극의 경우 더욱 탄탄한 극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성을 갖춘 <병자삼인>은 탄탄한 구성을 통해 희극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독자(혹은 관객)들을 극 속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기본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대로 <병자삼인>이 분명 희극의 구성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희극의 원리, 특히 희극적 웃음으로 해석했을 때 우승열패의 의미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3. '우승열패'에 대한 의미 분석

#### 1) 희극적 웃음을 통한 '우승열패'의 의미와 한계

희극에서 웃음은 일정한 사회의 관습, 관념과 상호관계가 있다.<sup>22)</sup> 그렇기 때문에 희극에서의 웃음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습, 습관 등의 전통적인 면과 불일치, 부조화를 이루는 한 인간의 우스꽝스러움에서 나오게 되며, 웃는 주체인 관객은 웃음거리가 된 그 인물을 통해서 사회적 예의규범과 조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관객 스스로 그 희극적 인물처럼 우스꽝스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웃음은 웃는 주체가 지니고 있는 공동의 이상(理想)<sup>23)</sup> 즉, 공동의 가치관을 전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희극적 웃음이란 어떤 사회 집단의 공동 이상을 가치기준으로 그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sup>24)</sup>

22) Henri Bergson, 김진성 옮김, 앞의 책, 6~7면.

23) 여기에서 '이상'이란 한 시대의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에게 의식 또는 감성의 형태로 공유되어 있는 것으로서, 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세대간의 차이에서 보이는 시대의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한 채 결함을 가진 인물을 통해 얻어진다는 희극적 웃음과 이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재확인하려는 희극적 원리를 따르다면, <병자삼인>에서 웃음의 대상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 전도된 남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등장인물과 여성등장인물 모두이다. 사적영역인 가정에서 벗어나 공적영역인 사회로 진출하였고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를 성취했지만, 여전히 당대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과 실제 상황은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위치였다는 점에서 <병자삼인>에 등장하는 여성등장인물들의 행태는 문제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웃음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성등장인물들의 경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여성의 도움을 받고 제대로 된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웃음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실제 <병자삼인>에서는 남성등장인물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성등장인물을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ㄱ) (업) 아이고 **망측히라** 아씨는 선칭님이고 서방님은 하인이라니 아이고 그 세상은 격구로 되었지 그런일이 어딴잇서 아이 **망측히라** 그러닛간 서방님이 밥짓고 꾸지람드러도 홀말업겏소(『매일신보』, 1912.11.19. 강조-인용자)

ㄴ) (설) 무엇이오, 큰일나요 판관스령으로 스눈구면 아이고 **망측히라** 그게 스늬쥬벽이란 말이오(『매일신보』, 1912.12.7. 강조-인용자)

ㄱ)은 이옥자네 집에 쌀값을 받으러 온 쌀집주인 여편네 업동모의 대사이고, ㄴ)은 박원청이 드나드는 기생집 조방 설월이가 노름채를 받으러 와서 박원청에게 하는 대사이다. 업동모와 설월이가 부인에게 얹혀 사는

24) 박영정, 「한국 근대 희극의 사적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1, 12~15면.

두 남자를 보고 공통적으로 하는 대사는 ‘망측히라’이다. ‘망측히라’라는 표현의 의미-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너무나 어이가 없거나 차마 볼 수 없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당대 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정상적인 남녀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남성들을 동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병자삼인>이 남성 등장인물들을 긍정적인 ‘웃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웃음의 대상이 긍정적인 것인 경우 그 대상은 전체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는 사회의 공동 이상에 부합하면서도 부분적으로만 그 이상에 어긋나는 ‘작은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작가나 혹은 웃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태도는 우호적인 것이 된다.<sup>25)</sup> 이러한 조건을 생각한다면 <병자삼인>에서 웃음의 대상인 남성들이 가진 결함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종의 과오 또는 추악, 아니면 우스꽝스러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sup>26)</sup>

그렇지만 “우리가 오백여년을 갖쳐있다가 이런 성덕을 만나서 녀조로 사회에서 활동을 히서 스나회의 업습을 맞지 아니하려는 것”이라는 공소사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남녀간의 질서를 역전시키려는 여성등장인물들의 경우는 당대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으로 묘사<sup>27)</sup>되며 비판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박) 즈네들은 심각을 그릇케 흐닛가 못쓰겟다흐는 말일세. 덕체 동양이라 흐는 것은 남존녀비호 풍속이 잇는 곳이라 가랑 녀조가 아모리 학문이 잇고 돈을 만이 벌찌라도 스나회는 감히 찍지 못흐는 법인 덕, 즈네들은 처음부터 마누라들에게 소들하게 보이며 노아서 점

25) 이러한 경우는 대상과 주체가 동일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계는 언제나 따뜻함과 진정한 우의가 유지된다.(박영정, 앞의 논문, 15면)

26) 손효주, 앞의 논문, 57~61면.

27)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인들이 남편에게 행하는 육체적·정신적 폭력이다.(우수진, 앞의 논문, 142~147면)

점 녀편너는 기승하고 스나희는 죽쳐지지 (……)

(하) 정말 그릇소이다 제일 병신이라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말을 흐드러도 불론죄(不論罪)라** 하는 것이 있스닛가(『매일신보』, 1912.12.22. 강조-인용자)

박원청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던 191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생각은 남존여비의 풍속을 바탕으로 한 남성우월주의이다. 이러한 생각은 웃는 주체(관객 혹은 독자)가 지니고 있는 공동의 가치관인 것이다. 그리고 <병자삼인>에서 공동의 가치관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법률에의 호소와 헌병보조원의 등장이며, 이를 통해서 부인들은 남편들에게 용서를 빚으로써 스스로를 반성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반성은 당대의 사회질서인 가부장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스나희) 이후에는 그런 방긋한 짓들흐지 말엿다

(세 계 집) 인제 다시는 병신흘너들 너지마시오

세 뭉텅이너외가 서로 손을 잡고 화목흔 모양. 헌병보조원은 기가 막혀 말한마디 업는 것으로 막이 닷치인다(『매일신보』, 1912.12.25)

여성등장인물들의 반성과 “서로 손을 잡고 화목흔 모양”의 화해의 분위기를 통해 당대 사회가 지향한 공동의 이상은 성취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희극적인 웃음을 통해 희극으로서의 성취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결국 <병자삼인>에서 웃음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식으로 극 진행을 즐기게 되면서<sup>28)</sup> 희극에서 전제하고 있는 올바른 현실비판의 가능성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희극적 웃음이란 기준으로 <병자삼인>을 분석한다면, 이

28) Jerome Stolnitz, 오병남 옮김, 『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실천, 1990, 265~266면.

작품이 지향한 우승열패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본래의 의미는 상실한 채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에 있어 아무리 우월하다 해도 서열화된 사회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자삼인>에 나타나는 근대적인 문물들과 제도를 통해 우승열패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우승열패가 지닌 사회적 함의는 단순히 ‘여성우월에 대한 부정’이란 의미로 한정짓기 어렵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우승열패’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2) 근대적 제도를 통해서 본 ‘우승열패’의 재해석과 의미

대조(contrast)란 훌륭한 드라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극작가는 흥미진진한 줄거리만이 아니라 세심하게 배치된 ‘대조’들을 통해 자신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잡으려고 시도한다.<sup>29)</sup> 이러한 대조의 효과는 <병자삼인>에서 잘 나타난다. <병자삼인>의 각 장에서 제시되는 전도된 부부 관계는 남녀간의 직업, 외양묘사, 사건해결능력(대응방식)의 대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분류 남/녀	직업	외양묘사	사건해결능력(대응방식)
정필수 / 이옥자	학교하인 / 교사	구체적인 언급 없음 / 히사시카미(箱髮)	임기응변적이면서 즉흥적이며
하계순 / 공소사	의사/ 의사원장격	구체적인 언급 없음 / 하이카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남편으로서의 권위에 의지
박원청 / 김원경	학교 회계 / 교장	구체적인 언급 없음 / 양복	/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

29) J. L. Stryan, 장혜전 옮김, 앞의 책, 121면.

<병자삼인>에 등장하는 세 쌍의 부부는 모두 같은 공간 속에서 활동한다. 김원경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박원청은 회계로 있고, 공소사와 하계순은 학교 촉탁의로 근무하고, 정필수와 이옥자는 각각 하인과 교사로 일한다. 즉 같은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남녀의 상반된 지위를 통해서 이들의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위의 차이는 외양묘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병자삼인>에서 여성이 남성들의 '병자흉내'라는 행태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과 남성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방식 역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 ㄱ) (옥) 아이고 요식 세상은 명식 사나히들이 엇지 히서 모도 그 모양들  
인가 그리서야 이 문명세계에 녀편네의 권리가 어딴잇겔소 위  
션 우리 집 하인부터 단단이 나물히야 흐겔소  
흐며 안으로 드러나서 정필수를 공박하려 흐는 것을 공소스가 말니며  
(공) 여보 가만이 계시오 이 보복으로 분풀이를 흐려면은 한 계교가  
있고 그리서 앓기도 내가 처음 진찰흐얏던 말과 궂치 중병이니  
편안이 놀리여두고 맛난 음식을 주라흐엿시오 내가 안이 흘말  
이 잇스니 귀를 이리덕시오  
두녀즈가 무슨 말인지 한층 슈군슈군흐더니 리옥자는 도화흐는 모양  
이라『매일신보』, 1912.11.28~29)
- ㄴ) (공) 흥 그말쫛소 아모리치도 안이헌 사름을 갖다가 병인이라고흐는  
학리가 엇딴잇소 그런 학리가 잇거던 좀 드릅시다  
(……)  
(하) 그……그……그것을 말을 흘 것 갖흐면……그귀에 말쇼리가 들  
니지 안이헌다니식……  
(……)  
과격헌 언스로 설명하라 직축흠의 하계순은 아모말도 안이흐고 고기  
를 숙이고 압만 내려다본다  
(하) ……

- (공) 왜 아모말을 못히 고미정괴(苦味丁幾)를 탈테다가 간장을 타서 사름을 먹이는 의원이니까 무병헌 사름을 병인으로 보았는지는 알슈업소만은 만일 그러케 잘못헌엇거던 의저녁에 잘못헌엇노라고 스죄를 흘 일이지 쥬저넘게 학리라하는 것은 다 무엇이야 아이고 안이쇼아서 그 학리는 엇던척에서 나온 학리요 디관절 동의보감이요 방약합편이요 정말 이런 짓을 각금헌면 나썩지 망신히겟스니까 오날은 용서홀슈업소 어디 그 학리를 설명히서 내 속이 시원하게 알아듯도록 헌여쥬오(『매일신보』, 1912.12.1~12.4)
- ㄷ) (갑) 그럴니가 잇소만은 명식이 스나회 쥬벽이라고 녀편네를 업신념여서 그리하는 것이닛가 다시는 그싸위 버릇을 헌지 못하게 단단이 버릇을 그르쳐야헌겟소
- (공) 글세 내말이야요 우리가 오백여년을 갖쳐있다가 이런 성덕을 만나서 너즈로 사회에서 활동을 히서 스나회의 업습을 밋지 아니헌려는 것이 우리 목덕인디 이런 일이 잇서서야 우리 목덕을 득달홀 슈가 잇소 그러헌니까 다시 스나회들이 이런 형실을 못헌도록 단단이 징치를 헌야헌겟길넹 당신을 뵈옵고 그 의론을 헌러온 길이올시다(『매일신보』, 1912.12.17)
- ㄷ) (정) 암만 말씀은 그리치오만은 스나회보다 녀편네가 글도 잘헌고 돈도 더 벌어서 서방을 먹여쥬닛가 엇더케 홀슈가 잇슴닛가
- (하) 이게 이른바 우승렬픽(優勝劣貶)라하는 것이오 그러
- (박) 자네들은 싱각을 그러케헌닛가 못쓰겟다하는 말일세 디체 동양이라하는 것은 남존녀비헌 풍속이 잇는 곳이라 가랑 너즈가 아모리 학문이 잇고 돈을 만이 벌씨라도 스나회는 감히 썩지 못헌는 법인디 즈네들은 처음부터 마누라들에게 소들헌게 보이여노아서 점점 녀편넹난 기승헌고 스나회는 죽쳐지지(……) 그런데 즈네들은 계집이 무서워서 병신흥넹를 다닌단말인가 그저 쥬떡 바람이 데일일세 그리도 듯지 안커든 넹썩차 바리지(『매일신보』, 1912.12.22)

다소 길게 인용된 위 인용문들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남녀간의 사건 해결능력을 잘 보여준다. ㄱ)은 귀머거리 흉내를 내는 정필수를 혼내기 위하여 이육자와 공소사가 계책을 마련하는 장면이고 ㄴ)은 정필수에게 거짓진단을 내려 이육자를 속인 하계순을 공소사가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이고 ㄷ)은 공소사를 통해 학교 직원(정필수, 하계순, 박원창)이 병자흉내를 낸다는 것을 알게된 김원경이 공소사와 함께 그들을 혼내줄 계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ㄷ)은 궁지에 몰린 남편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장면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ㄱ)·ㄴ)·ㄷ) 장면의 여성들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남편을 혼내줄 방법을 생각하거나 남편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데 반해, ㄷ)의 남성들은 '쥬먹바람'을 하거나 '늑삿차 버리는' 것이 생각해낸 전부이다.

이렇듯, <병자삼인>은 계속되는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서 남녀간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를 통한 차이의 부각으로 인해 강조되는 것은 분명 남편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다. “스나희보다 너편네가 글도 잘하고 돈도 더 벌어서 서방을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성들에게 남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정필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병자삼인>에서 여성의 우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여성을 이러한 위치로 끌어올린 원동력은 변화된 세상에서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교육’에 있다.

사실 조선사회에서 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었다.<sup>30)</sup>

30)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여성주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9, 63면.

(정) 아- 참 세상도 괴악하고, 강원도 시골구석에서 국으로 가만히 있어서 뽕스나 하고 드리엿디엿드면 뽕홀것을 이게 무슨 팔즈란말이오 서울을 올라올제 우리 녀외가 손목을 마조잡고 와서 **무슨 큰 슈나 싱길줄 알고 물을 쥐여 먹어가면서 녀외가 학교예를 단이다가** 막이올에 졸업이라고 하여서 엿던 학교의 교스시험을 치루엇더니 운슈가 불헿호노라고 마누라는 급테를 하여서 교스가 되고 나는 락테를 하여서 그 학교하인이 되엇스니(……)(『매일신보』, 1912.11.17. 강조-인용자)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필수가 강원도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온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지금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 신분상승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즉 근대적 제도로 조선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학교교육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문명화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우리 녀외가 손목을 마조잡고 학교예를” 다녔다는 것은 분명 전통적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지식과 교양,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은 한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교육은 흔히 식자우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러한 편견은 근대로의 이행 이후에 1920년대에 들어와서도 예컨대 여자의 고등 교육은 결혼이나 생식력에 장애가 된다는 형태로 재생되어왔다.<sup>31)</sup> 그렇기 때문에 <병자삼인>에서 정필수가 이육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낮은 지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sup>32)</sup>를 주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여성에

31) 김정일, 「식민지 여성 교육과 지식의 식민지성-식민 권력과 근대성의 각축」, 『사회와 역사』 59집, 한국사회사학회, 2001, 83면.

32) 전은정, 앞의 논문, 61~62면.

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당대 일반적인 여성교육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진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교육받은 세 여성이 모두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것은 전도된 남녀관계와는 상관없이 여성이 가정 밖의 세상으로 진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전 사회와는 다른 변화된 사회의 움직임을 <병자삼인>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교육받을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실제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과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획득되는 결과는 남성들에 대한 교육과 여성들에 대한 교육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당시 여자고보(여자고등보통학교-인용자)는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제 18조에 따라 이른바 기예과(技藝科)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남자고보(남자고등보통학교-인용자)의 실업과에 대응하는 것으로 재봉이나 수예, 가사 등의 실기에 역점을 두었다. 문제는 이러한 실용위주의 교육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아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교과목에서 실용 교육의 비중이 높았다. 여자고보의 경우 기예교과의 비중은 1910년대에 전체 시간 배정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1910년대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남자고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동일한 실용 교육이라 하더라도 남성의 경우에는 그것이 직업을 위한 실업 교육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에 대체로 여성에게 그것은 가정과 가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 실용이란 사회진출이나 직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가정 중심의 교육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sup>33)</sup>

33)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 사례연구-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54~58면. 이 논문에서는 남자교육과 여자교육의 차별성에

이렇듯 남·녀교육의 지향점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과 연관시켜 봤을 때, <병자삼인>의 배경이 되는 1910년대에 있어서 여성에게 주어진 근대적 교육의 기회는 ‘새로운 서구 근대 사상의 이상을 받아들이되 기존의 성역할 분업을 다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개혁’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자아각성을 위해 교육기회를 주되 그것은 바로 여성들에게 부여된 ‘천직’, 즉 가정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191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여성교육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병자삼인>에도 반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성교육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병자삼인>에 등장하는 세 여성인물의 직업이 가지는 성격이다. 이 당시 여성들에 있어서 직업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소망을 지닌 여성들이 자신도 남성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분자로서 똑같이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시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을 얻을 수 있<sup>34)</sup>는 하나의 ‘해방구’로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 공헌과 경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일 수밖에 없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직업으로는 전문직인 ‘교사·의사’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교사직과 의사직은 여성의 천성에 적합하고 가정과 직업을 양립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성직업’<sup>35)</sup>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대해서 자세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식민지 여성교육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본문의 인용에서는 이 둘을 비교하는 상당한 양의 실증적 자료들을 모두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였기 때문에 다소 미흡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현경미의 논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34) 전은정, 앞의 논문, 87~88면.

35)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54면.

1914년 1월 5일자부터 『매일신보』에 연재된 「여자직업」란을 보면, 여자가 가질

'가정과 직업의 양립'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이상적인 가정을 성립시킬만한 능력이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봤을 때, <병자삼인>은 "단체 동양이라하는 것은 남존녀비하 풍속이 있는 곳이라 가량 너즈가 아모리 학문이 있고 돈을 만이 벌찌라도 스나희는 감히 썩지 못흐는 법인디"라는 박원청의 말대로 거부장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천직으로서의 가정과 직업으로서의 사회생활 모두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여성이란 중심에는 '전통'을, 그 표피에는 '근대'를 배치해 균형을 맞춘 그런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병자삼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요구에 걸맞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병자삼인>에 등장하는 세 여성들의 주장은 모두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우승열패'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에서 "이십세기에서 싱할흐는 사름으로 우승열픽힘은 정흐 리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뛰어난 능력을 기반으로 남성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성은 당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들을 교정하고 사회와 가정에 모두 적합한 여성으로 재배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법률'이다.

ㄱ) (박) 글세 이와 병신인테들을 흐엿다니 그디로 너여 썩는 것도 스나희에 흥동이란 말이야, 그리서 너편네들을 좀 고심을 식여야지 그것도 묘흔 계척인디

(하) 정말 그럿소이다 제일 병신이라흐는 것은 **법률상으로 말을 흐드릭도 불론죄(不論罪)라흐는 것이 잇스닛가**(『매일신보』, 1912.12.22. 강조-인용자)

수 있는 직업으로 '여교원, 길삼, 아이보기, 굴따는 처녀, 슈모, 마전장사, 양잠, 홍삼직공, 기생'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직업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공헌과 경제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전문직은 '여교원'에 불과하다.

ㄴ) (박) 자-인제 우리가 이모양을 당헌바에야 무엇을 해야될것이 있나,  
 병신은 **법률에도 불론죄니신** 아모것을 하여도 관계업스니 우리  
 세사람이 입덧가지 벌어노은 학교에 잇는돈은 모도 가지고 나가  
 서 우리 분빅하여 먹세, 자-들어가세(『매일신보』, 1912.12.24. 강조  
 -인용자)

‘스나회보다 너편네가 글도 잘하고 돈도 더벌어서 서방을 먹여쥬닛가’  
 어쩔 수 없었던 남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내세운 것이 ‘불론  
 죄(不<sup>レ</sup>論<sup>レ</sup>罪)’로 대표되는 법률이다. 우승열패, 약육강식으로 대표되는 사회  
 진화론 비판에 효율적인 거점이 되었던 것은 법률이었다. 그리고 법률은  
 강권(強<sup>レ</sup>權)의 횡포에 맞서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도 했으며, 인간적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책이었다.<sup>36)</sup> 그렇지만 법  
 률에 근거한 남편들의 반발은 ‘이혼’을 앞세운 부인들의 태도와 부딪히  
 면서 극단적인 대립만을 가져올 뿐이었다. 법률이 더 이상의 힘을 발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자삼인>이 동원한 것이 ‘우연한 헌병 보조원’  
 의 등장이다.

박원청이 압흘서고 하계순, 정필슈도 문안으로 드러가라하는 것을 세  
 녀자는 놀너여 못드러가게 붓들고 한참 동안 닳토는디 **헌병 보조원**  
**길춘식이 나와서 제지하며(……)**

세 사나회는 발을 구르며 잡아가라하고 헌병은 영문을 모르고(……)  
 세 몽텅이너외가 서로 손을 잡고 화목한 모양, 헌병보조원은 기가 막  
 혀 말한마디 업는 것으로 막이 닳치인다(『매일신보』, 1912.12.25. 강조-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침예하게 대립하던 남녀간의 대결을 한

36)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232~233면.

순간 해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헌병 보조원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에 <병자삼인> 연구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헌병 보조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관습적인 극적 장치중 하나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sup>37)</sup>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헌병의 등장을 결말과 관련지어봤을 때 연구자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우선 '헌병 보조원의 등장으로 여자들이 새로운 인식에 이르는 바, 남편을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인정하는 즉 진정한 여성성을 회복'<sup>38)</sup>한다는 견해, '헌병 보조원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근대 제도들이 희화화되고 있다'<sup>39)</sup>는 견해, '헌병 보조원의 등장으로 극적 갈등 구조를 부부간의 대립에서 세 부부와 헌병 보조원간의 대립, 즉 식민지민과 식민지배자대변인간의 대립으로 재배치된다'<sup>40)</sup>는 견해 등으로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헌병 보조원의 등장'을 우연한 것이 아닌 '의도적인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보고자 한다. 사실상 가정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고 이는 곧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1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여성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다.<sup>41)</sup> 그러한 여

37)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는 절박한 장면의 해결책을 의미한다. 문자적 의미는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이다. 원래는 희랍극에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위에서 무대 위로 강림하는 하늘나라의 인물이 도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신이 기적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행복한 결말로 해결해 준다. 이제는 곤란한 상황이 논리에 맞지 않는 수법으로 급작스러운 해결을 맺는 것을 총칭한다.(G. B. Tennyson, 김종선 역편, 앞의 책, 241면)

38) 구명옥, 앞의 논문, 31면.

39) 양승국, 앞의 논문, 47면.

40) 우수진, 앞의 논문, 149면.

41) 「女子에게 教育을 施하라-女子教育이 無하면 社會는 半身不遂」, 『매일신보』, 1915.2.5.

“(……) 그러나 녀자의 성질은 남자의 성질과 갖지 안이하니 만일 가뎡과 학교가 서로 연락하여 엄하게 감독하지 아니하면 여러가지 폐가 생기는 것이라 혹 눈만 넓게 되어 집에 잇스나 혼인을 하여 남자와 동거하나 모든 일이 눈에

성이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거부하면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의 소유자인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국가를 대표하는 헌병이 그 직책에 있어서 보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심해 볼만한 문제이다.

일본은 1908년 6월 11일에 조선정부 칙령 제 31호의 형식을 빌어 조선인 헌병보조원을 모집하였다. 그 자격요건은 만 20~45세의 조선인으로 한글해득자이어야 하며, 군속 신분으로서 헌병의 업무를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 정원은 약 4000명이었으며 7월 1일부터 9월에 걸쳐서 채용되었다.<sup>42)</sup> 앞서 헌병 보조원의 의미를 국가권력(혹은 국가가 허락한 공권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헌병의 지위가 보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실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형집행능력이 없는 조선인 헌병 보조원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헌병 보조원은 무기력한 이름뿐인 국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허상의 권력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헌병 보조원이 가진 허상의 권력은 그가 정작 사건 해결에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도

차지 아니하여 제형실 제지조는 닥지도 못하며서 엇터던지 남의 눈에 반작쓰이게 웃이나 잘 입고 십퍼하여 교육헌 보람은 업고 교육헌체 히만 잇게 되면 참한심헌일이라 흘지라 그러헌즉 녀즈를 교육헌는 동시에 엄중히 감독헌야 남의 안희가 되거던 순량헌 부인이 되게 하며 남의 모친이 되거던 현숙헌 모친이 되게 흘지라”(강조-인용자)

42) 홍성태, 「식민지체제와 일상의 군사화」,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김진균·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2000, 366면.

헌병은 경찰관을 겸하고 광범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즉결 재판권을 가졌다. 그리고 헌병 경찰의 업무는 첩보의 수집, 범죄의 즉결, 노동자 단속, 일본어의 보급, 풍속 단속이었다. 헌병이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데 비해, 헌병 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받지 못하였다.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헌병 보조원이 가진 권력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병 보조원의 등장으로 남성을 징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여성이 용서를 빈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헌병은 포승으로 얼그려하고 세녀즈는 잡아다가 엇지 흐려하나 물은 즉  
(길) **말씀 조사한 후에는 검숙국으로 보닉서 감옥서로 들어갈터이지  
세녀즈는 꺾꺾 놀늬며**

(.....)

(세계집) 남편의 버릇을 좀가르치사가 하고 이 지경을 흐엿습니다 그려

(세스나회) 이후에는 그런 방즈흔 것들흔지 말엿다

(세계집) 인제 다시는 병신흥늬들 닉지마시오

세 몽텅이 뇌위가 서로 손을 잡고 화목흔 모양, 헌병 보조원은 기가 막혀 말한마디 업는 것으로 막이 닷치인다.(『매일신보』, 1912.12.25. 강조-인용자)

<병자삼인>에서 남편들이 체포되기를 바라던 부인들이 태도를 바꾸게 된 원인은 “검숙국으로 보닉서 감옥서로 들어갈터이지”라는 헌병 보조원의 말 때문이다. 헌병 보조원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것은 앞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헌병 보조원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헌병 보조원 뒤에 ‘검숙국’이라는 또 다른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허상의 권력’인 헌병 보조원 뒤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 즉 일본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헌병 보조원의 역할은 상실되고, 오히려 실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력, 여기서는 식민모국인 일본을 통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 실제 권력이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전통적 자아상을 근대의 틀 안에서 재생하고 식민지의 다중적 억압을 받는 여성의 타자화를 재현하는 것’<sup>43)</sup>이다. 그를 통해서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이상적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 권력의 요구는 <병자삼인>에서 부인이 반성을 하고 남편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세 몽탕이 너외가 서로 손을 잡고 화목한 모양’으로 결말을 맺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결국 가정은 다시 가정의 내부의 일과 외부의 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모양처형 여성이 존재하는 이상적 가정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된 남녀관계’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승열패의 타당성을 주장하려 한 <병자삼인>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우승열패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앞서 희극적 원리를 통해 해석한 우승열패의 의미가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에 있어 아무리 우월하다고 하여도 전통적 가부장적 질서로서 열화된 사회에서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정도였다면, 근대적 제도를 통해 해석한 우승열패의 의미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 권력 앞에서 힘을 상실한 여성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 재배치되는 ‘우승열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삼인>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함과 동시에 일본이 당시 조선사회에 바라던 현모양처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 가정 형성에 동조하는 이중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5. 결론

이 논문은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에서 강조한 우승열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병자삼인>에 나타난 우승열패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희극 <병자삼인>’의 연재 예고에 나타난 논리의 특

---

43) 김정일, 앞의 논문, 85면.

이함, 즉 희극적인 웃음과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우승열패의 논리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웃음의 교정기능을 통해서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희극의 원리와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우승열패의 이치가 양립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논리이다. 그런데 <병자삼인>에서는 이러한 상반되는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작가 조일재가 희극적인 형식으로 포장된 <병자삼인>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우승열패의 논리가 분명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병자삼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우승열패의 논리는 단순히 희극의 원리만으로 해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논문은 희극의 원리, 특히 희극적 웃음으로 해석된 우승열패의 의미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텍스트에 나타난 근대적 제도를 통해서 우승열패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희극적 웃음이란 기준으로 <병자삼인>을 분석했을 때, 이 작품이 지향한 우승열패는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본래의 의미는 상실한 채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에 있어 아무리 우월하다 해도 그 우승열패는 서열화된 사회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근대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병자삼인>을 살펴봤을 때 이 작품이 보여주는 우승열패의 사회적 함의는 좀더 확대되어 나타났다.

<병자삼인>에 등장하는 중요한 근대적 제도는 '교육'이었다. <병자삼인>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로 끌어올린 원동력은 변화된 세상에서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 교육에 있었다. 그런데 <병자삼인>의 배경이 되는 1910년대에 있어서 여성에게 주어진 근대적 교육의 기회는 여성들에게 부여된 '천직', 즉 가정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병자삼인>에 등장하는 세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걸맞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교정하고 사회와 가정에 모두 적합한 여성으로 재배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법

를'과 '헌병 보조원', 그리고 '검스국'이었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상의 제도들은 모두 국가권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권력이 식민지 조선 사회의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전통적 자아상을 근대의 틀 안에서 재생하고 식민지의 다중적 억압을 받는 여성의 타자화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를 통해서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이상적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병자삼인>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 권력 앞에서 힘을 상실한 여성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 재배치되는 '우승열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승열패의 의미를 기준으로 본 <병자삼인>의 의미는 단순히 가부장적 질서에 근거를 둔 '여성우월의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병자삼인>은 일본이 당시 조선사회에 바라던 현모양처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 가정 형성에 동조하는 모습을 희극적 양식을 통해 보여준다는 부정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제어: 희극적 웃음, 가부장적 질서, 우승열패, 근대적 제도, 현모양처, 국가 권력, 이상적 가정의 형성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조일재, <병자삼인>, 『매일신보』, 1912.11.17~12.25.

『매일신보』

## 2. 단행본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새미, 1997.
- Asmuth, Bernhard, 송진 역, 『드라마 분석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6.
- Bergson, Henri, 김진성 옮김, 『웃음-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1983.
- Stolnitz, Jerome, 오병남 옮김, 『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실천, 1990.
- Syan, J. L., 장혜전 옮김, 『연극의 경험』, 소명출판, 2002.
- Tennyson, G. B., 김종선 역편, 『희극입문』,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1985].

## 3. 논문

- 권오만, 「<병자삼인>攷」, 『국어교육』 1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1, 155~182면.
- 구명옥, 「희극 <병자삼인> 연구」, 『한국극문학』 1집, 한국극문학회, 1999, 9~39면.
- 김경일, 「식민지 여성 교육과 지식의 식민지성-식민 권력과 근대성의 각축」, 『사회와 역사』 59집, 한국사회사학회, 2001, 83~109면.
- 박명진, 「근대 초기 시각 체제와 희곡」, 『한국극예술연구』 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51~95면.
- 박성진, 「사회진화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20C 초반 한국 지식인들의 논의와 그 성격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2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96, 177~211면.
- 박영정, 「한국 근대 희극의 사적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손효주, 「희극론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양승국, 「<병자삼인> 재론」, 『한국극예술연구』 10집, 한국극예술학회, 1999, 11~53면.
- 우수진, 「<병자삼인>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5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131~156면.
- 이광국, 「<병자삼인> 연구」, 『배달말』 7호, 배달말학회, 1982, 129~142면.

-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신여성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성별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임종찬, 「육당의 문학에 미친 일본의 문예사조」, 『한국문학논총』 22집, 한국문학회, 1998, 181~201면.
-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여성주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9.
- 조창환, 「조일재 작 <병자삼인>의 극문학적 성격」, 『국어문학』 22집,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 161~173면.
-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 사례연구-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홍성태, 「식민지체제와 일상의 군사화」,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김진균·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2000, 356~387면.



Abstract

Meaning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ppeared in Ahe Play

*Byungjasamin* ('Three Patients, 病者三人')

Lee, Seung-m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what the meaning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which has been emphasized in the advance notice of the serial with regard to the play *Byungjasamin*. In fact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ppeared in *Byungjasamin*. However, the reason is because I am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meaning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gain is the specificity of the logic that appeared in the advance notice of the serial of 'The comedy *Byungjasamin*', that is to say,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comic laugh and the rule that 'the survival of the fittest'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have become an equal term. When we think of it on the common sense view, coexistence of the logic of comedy that tries to restore the original order through modifying function of laughing, and the principal law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is a controversial logic. However, in the *Byungjasamin*, it accepts such controversial logic. This means that the writer Cho, Il-jae definitely has a logic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which he wanted to present through means of packaging in a comic style. However, the logic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which is the ultimate goal driven by *Byungjasamin* cannot be explicated only by the principle of comedy.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such a consciousness on the problem,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limit contained in the meaning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which has been interpreted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comedy, the comic laugh, and also it was to interpret newly the meaning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rough the modern

system appeared in the text.

When interpreted by means of the principle of comedy, especially of comic laugh, the limits that contained in the meaning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re as follows:

When we analyze *Byungjasamin* on the basis of comic laugh,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at has been aimed by this work may be understood in so much that does not exhibit any power at all in a society based on hierarchical relationship, no matter how much women is superior to men in terms of capability, losing the original meaning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Nevertheless, with a thought on that the social implication of the rule that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Byungjasamin* does not stay only there, I have extended my study to the modern culture and civilization, and the social system appeared in the work together with its implication in terms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s a result, *Byungjasamin* shows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that the women who have lost their power before the state authority, which has the strongest power, is dispatched again to home, the most basic unit of the state. Therefore, *Byungjasamin* includes a dual characteristic tuning to the formation of an ideal family based on the concept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which was desired by the Japan of those days in the Chosun(朝鮮) society supporting the order of traditional patriarchy simultaneously.

Key words : comic laugh, patriarchal order, the survival of the fittest, modern system, wise mother and good wife, state power, the formation of an ideal family

접수일 : 2004년 2월 28일

심사기간 : 2004년 3월 1일~20일

재심사 : 2004년 3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3월 30일(편집위원회)